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및 시사점

김동겸 선임연구원

-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15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100세 이상 고령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일상생활수행 측면에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령인구 확대에 예상되는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의학기술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기준 3,159명으로, 2010년 대비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
 - 100세 이상 고령인구는 남성(13.5%) 보다는 여성(86.5%)의 비중이 높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21.9%)와 서울(16.5%) 등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0년 16.2%에서 15.7%로 소폭 감소함.
 - 한편,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지역별 노인 수는 제주도(17.2명), 전남(12.3명) 등의 순이며, 울산(3.8명), 대구(4.3명), 부산(4.7명)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장수의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100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금연이나 금주를 하고 있으며,²⁾ 건강유지를 위해 식사조절, 규칙적 생활, 운동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비중은 60.8%로 나타남.

- 100세 이상 노인인구³⁾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15년 기준 70,500명에 달함.⁴⁾

1) 통계청 보도자료(2016.7.2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2) 평생 금연을 한 고령자는 79.0%이며, 평생 동안 전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고령자의 비중도 76.7%에 달함. 또한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은 73.0%인 반면,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고령자는 0.4%에 불과함.

3) 100세 이상 고령자는 100년을 살았다는 의미로 “센터내리언(centenarian)”으로 칭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2000년 대비 3.3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일본과 영국은 각각 5.7배, 1.9배 늘어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수는 6.6명으로, 일본 55.5명, 영국 22.4명보다는 적음.

〈표 1〉 주요국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합계
2000	82	852	934 (2.0)	2,027	10,229	12,256 (9.7)	10,057	40,397	50,454 (17.9)	6,850 (11.6)
2005	104	857	961 (2.0)	3,760	21,593	25,353 (19.8)	N.A.	N.A.	N.A.	8,830 (14.6)
2010	255	1,580	1,835 (3.8)	5,851	38,031	43,882 (34.3)	9,179	44,185	53,364 (17.3)	11,650 (18.6)
2015	428	2,731	3,159 (6.6)	8,800	61,700	70,500 (55.5)	N.A.	N.A.	N.A.	14,450 ²⁾ (22.4)

주: 1) 괄호 안의 값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수임. 2) 영국의 경우 2014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2006, 2011, 2016); 総務省統計局(2016); U.S. Census Bureau(201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의식주 및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100세 이상 고령자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의 거주 비중이 증가함.⁵⁾
-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80.8%)가 많으나,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 15.6%에서 2015년 61.8%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약이 없는 10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4) 일본은 1963년부터 매년 9월 15일 노인의 날(敬老の日)에 100세가 된 노인에게 축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고토부키(寿, kotobuki)” 란 글자를 새긴 은으로 만든 술잔인 “사카즈키(サカズキ, sakazuki)” 를 선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그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2016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합금술잔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The Wall Street Journal(2015.10.16)).

5)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010년 대비 12.5%p 감소한 44.6%로 나타난 반면, 노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010년 대비 23.9%p 증가한 43.1%를 기록함.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 비중은 5.3%에 불과함.

매우 낮아, 대다수 고령자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⁷⁾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⁸⁾에 제약이 없는 고령자 비중은 각각 17.5%와 2.1%에 불과함.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수립과 더불어 고령자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족형태 변화로 생활비 등을 정부에 의존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지출액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정책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고령자는 대부분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와 더불어 신체기능장애에 대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kiri**

7) 기본적 일상생활(Activity of Daily Living: ADL)에는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자리에 서 일어났다 눕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포함됨.

8) 도구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DL)에는 생활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타기,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의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이 포함됨.